

# 매체분석을 통해 본 노라노 패션과 한국 패션 고찰 (1)

-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노라노 관련 영화 의상 자료를 중심으로 -

박 신 미\*

국립안동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디자이너 노라노 소장 자료와 연구자 수집 노라노 관련 인쇄매체자료를 분석하여 노라노 패션과 한국 여성 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는 연구(1)과 연구(2)로 나누어 개진되며, 본고인 연구(1)에서는 한국 패션의 탈전통화 배경과 1956년부터 1966년까지의 노라노 영화 의상을 분석하여 탈전통화기의 트렌드와 영향을 고찰하고, 후속연구인 연구(2)에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인쇄 및 영상 매체자료를 분석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재검증하고 한국 여성 패션 현대화의 주요 사건들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추출할 것이다. 본고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분석대상을 연구대상자 소장 패션쇼 리플렛, 촬영시점이 기록된 사진자료, 신문, 패션전문잡지, 영화포스터 그리고 신문 박물관과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자료들로 국한한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이다. 또한 연구는 사실검증을 위해 노라노와의 심층면담을 세 차례 진행한다. 연구(1)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이전 한국 패션의 탈전통화 현상은 서양문물의 단순한 유입이 아닌 전도부인, 여학생, 유학생 등의 시대의 패션 리더들에 의해 구축된 것이었으며 이 시기는 간접적 탈전통화시대이다. 반면 전쟁 이후 스타일은 양장점에서 디자이너 브랜드로 도약한 최경자, 노라노, 서수연 등의 제1세대 디자이너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 시기는 우리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한 직접적 탈전통화 시기이다. 프랑스와 미국의 영향을 받은 노라노는 일본 패션 시스템에 영향을 받은 최경자와 함께 20세기 중반 한국 패션 스타일을 주도하였다. 노라노의 영화의상 분석결과 노라노는 『아름다운 악녀(1958)』의 최지희를 팜파탈의 여신으로, 『배신(1964)』의 엄앵란을 한국의 오드리 헵번으로 만드는 등 여배우들의 스타일을 통해 국외의 트렌드를 국내에 전파시켰다. 해당 영화배우들의 스타일은 20세기 중반 한국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였으며 한국 패션의 현대화에 일조하였다.

주제어 : 한국 근현대 패션사, 노라노, 탈전통화,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 20세기 중반 한국 영화의상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5A8019281).

\*교신저자: 박신미, [fashion@anu.ac.kr](mailto:fashion@anu.ac.kr)

접수일: 2016년 10월 2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4일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를 연구하여 한국 패션사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은 개인의 업적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연구의 객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그동안 연구대상에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디자이너의 연구는 작품의 특성 및 브랜드의 발전을 고찰하는 기초연구와 함께 이를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심층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20세기 중·후반 한국 패션의 현장을 지켜온 제1세대 디자이너들에 관한 연구는 자료가 불충분한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패션의 실증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 덕분에 제1세대 디자이너 중 한명으로 생존해 있는 노라노의 연구가 2012년 이후 디자이너 구술채록연구(Park, 2012), 미국의 영향(Hahn, 2012a), 디자이너 브랜드의 발전 과정(Park, 2014a) 그리고 디자이너의 실물 작품과 패션쇼 분석(Park, 2014b) 등 1편의 구술채록연구와 3편의 연구논문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가 사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방대한 연구범위의 분석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검증과 더불어 디자이너의 주장에 의존한 기반연구들의 사실관계를 객관적 문헌을 근거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라노 관련 영상 및 인쇄매체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근현대 패션사적 가치가 있는 실증데이터를 추출하려 한다.

### 2. 연구목적 및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디자이너 노라노 소장 자료와 연구자 수집 노라노 관련 매체자료를 분석하여 노라노 패션과 한국 여성

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의 지면 제한으로 연구(1)와 연구(2)로 나누어 연구를 개진하며, 연구(1)에서는 한국 패션의 탈전통화(post-traditional) 배경과 1956년부터 1966년까지의 노라노 영화 의상을 분석하여 탈전통화기의 트렌드와 영향을 고찰하고, 연구(2)에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인쇄 및 영상 매체자료를 분석하여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재검증하고 한국 여성 패션 현대화의 주요 사건들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추출할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이후 6·25전쟁 전까지 한국 패션의 탈전통화 현상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전되었으며, 이 시기와 제1세대 한국 패션디자이너들의 활동시점인 1950년대 이후 한국 패션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둘째, 제1세대 디자이너가 한국 패션의 적극적 탈전통화를 주도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노라노 영화 의상의 스타일은 어떠한 특징을 지녔는가, 셋째,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노라노 관련 인쇄매체 자료 분석결과 추출된 패션 트렌드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넷째, 선행연구와 다르게 밝혀진 패션사적 사건은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 패션 현대화 양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서양의복의 국내유입과 확산과정을 살펴보고, 전쟁 이전 양장점시대 이후 패션디자이너 시대의 한국 여성 패션을 의복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여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구축한 후, 출처가 명확한 노라노 관련 인쇄매체자료 248편과 영상매체자료 40편, 총 288편을 분석하여 사적 자료를 추출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추출된 결과물은 노라노와 3회 면담을 통해 내용을 검증하고 관련된 추가 자료를 수집하여 콘텐츠별 질적 연구를 진행한다. 본고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분석대상을 연구대

상자 소장 패션쇼 리플렛, 촬영시점이 기록된 사진자료, 신문, 패션전문잡지, 영화포스터 그리고 신문 박물관과 한국영상자료원 소장 자료들로 국한하며, 디자이너의 주관적 관점이 들어간 자서전, 일대기를 기술한 신문 및 잡지, 다큐멘터리, TV 인터뷰, 2012년 『La vie en Rose 展(2012)』의 홍보물로 게재된 신문 및 잡지 매체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본고는 연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 및 인쇄매체자료 직접 인용 시 제목 및 기사내용의 맞춤법 표기 및 띄어쓰기 등은 원 자료의 표기법에 근거하여 기술하며 영문표기의 원전에 영문표기가 기재된 것은 이에 따르며 표기가 되지 않은 것은 번역어와 원문독음을 함께 병기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20세기 중·후반 한국 패션의 특징, 노라노 패션의 성장과정, 활동 시기별 특성,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이 이미 고찰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매체분석을 통한 선행연구의 객관적 사실검증과 현대화 양상에 영향을 준 패션사적 사건 및 사실을 밝혀내는데 집중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영화의상분석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며, 선행연구 중 패션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디자이너의 전시기획 논문(Hahn, 2012b)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한 내용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노라노와 3회의 자료검증면담을 실시한다. 연구자는 연구 자료 수집기인 2014년 5월 26일과 2014년 7월 29일 2차례 노라노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매체자료 검증을 통해 실증자료 추출이 마무리된 직후에 노라노와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한국 여성 패션의 현대화와 복식의 탈전통화

19세기 말 찰스 프레드릭 워스(Charles Frederic

Worth, 1825-1895)가 현대 서양 패션의 기틀을 다진 이후 오트 쿠튀르라는 직업군이 급부상했다(Park & Lee, 2010). 코르셋과 크리놀린에 얽매었던 서양 전통 복식의 형식이 프랑스 제1세대 쿠튀르들에 의해 혁신되며 서양 여성 패션의 현대화가 구축된 시점을 1900년대 후반이라고 규정할 때(Park & Lee, 2010), ‘의복현대화’라는 관점에서 단순한 서구 스타일의 수용 혹은 모방만으로 20세기 한국 패션의 현대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치, 문화,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손에서 탄생한 의복의 출현을 고찰하는 것은 한국 패션의 근대화과정을 밝혀내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출현한 한국 복식의 탈전통화 현상은 개방을 통한 서구문물의 유입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이 낳은 사회·문화적 부산물이다. 개방과 규제라는 서로 다른 이념의 충돌 결과는 전통 형식의 붕괴로 이어지며 1945년 해방 전까지 남성을 위한 서양식 의복인 양복을 필두로 여성을 위한 양장이 전통 복식과 함께 공존하는 이중적 의생활 구조를 구축해냈다.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전통 의상 한복 그리고 일제의 강압에 의해 기형적으로 생성된 몸빼가 강요되는 의생활의 혼란 속에서도 의복의 서구화는 계속되었다. 특히 20세기 한국 근현대사 중 가장 굵직한 시기인 태평양 전쟁 종전부터 1950년 6·25 전쟁 직후를 기점으로 미군의 문화와 구호품이 유입되면서 대중의 생활 패턴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상황이 만들어낸 모방과 수용이라는 소극적 움직임으로 한국 패션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적극적 탈전통화 현상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에서 탈전통화 현상은 전통 복식의 모든 요소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복 아이템을 포함한 의복 형식의 변화로 그 의미를 국한한다. 곧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착용의 슈트

와 코트, 드레스 등 변화된 서구 의복 형식의 유입과 더불어 한복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서양 의복 혹은 변형된 전통 의상의 양식 역시 탈전통화의 범주에 포함한다. 본 연구는 전통 의상인 한복에서 서구 의복의 도입으로 의생활이 변화된 20세기 초·중반의 한국 패션의 탈전통화 현상을 ‘소극적 탈전통화 현상’과 ‘적극적 탈전통화 현상’으로 구분하며 양장점 시대를 벗어나 패션쇼의 개최로 대중에게 한국 패션디자이너가 직접 트렌드를 전파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후반을 한국 패션의 적극적 탈전통화의 시작점으로 규정하려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유입되어 무분별한 모방을 통해 서구식 남성복의 여성복화에 머물러있던 양장점 시대의 서양 의복이 아닌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손에서 창조된 한국 현대 여성 패션의 발전에 주목하려 한다.

한국 패션의 적극적 탈전통화 현상과 의복 현대화는 전쟁이라는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사치품으로 치부되며 그동안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었다. 하지만 패션쇼를 개최하며 양장점 시대의 탈피를 주도하고 대중에게 트렌드를 전파한 1950년대 중반 최경자, 노라노, 서수정, 서수현(아리사), 송옥, 이병복, 임복순(미성양복점)(Park, 2014a) 등의 제1세대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중요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56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쇼인 노라노 패션쇼가 이듬해인 1957년에는 서수정의 의상발표회 그리고 최경자의 복장작품전이 ‘제1회 최경자 의상발표회’라는 제목으로 반도호텔 다이너스터 룸에서 개최되었고(Yoo, 1990), 이후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트렌드가 대중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디자이너 패션쇼가 개최된 1956년부터 이후 10년간은 한국 패션디자이너에 의해 트렌드가 제시되고 맞춤복이 기성복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한국 패션 현대화의 도약기이다. 곧 이 시기는 이후 20세기 중·후반 한국 패션의 기반이 구축된 시점이자 발

전의 원동력이 된 시기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된 한국 패션의 적극적 탈전통화는 한국 패션 현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의 첫 번째 연구는 노라노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 패션스타일을 주도했던 영화배우 의상의 스타일을 매체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내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기존에 밝혀진 사실들을 재검증하고 새로운 사실을 추출하려 한다.

## 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앞서 밝혔듯이 제1세대 디자이너 중 노라노 관련 자료를 심층 분석한다. 해당 디자이너 관련 선행연구는 1편의 구술채록연구와 3편의 선행연구논문이 확인되었다(Table 1). 국립예술자료원의 2012년 한국 근현대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로 기획된 Park(2012)의 구술채록연구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개월간 노라노를 채록 연구하고 이후 2013년 10월 해당 자료가 구술채록 집으로 정리되었다. 자료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과 디자이너 노라노의 생애사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나 구술채록연구의 특성상 구술자의 녹취를 그대로 수용하는 연구방법의 제한으로 역사적 가치를 검증하는 분석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노라노 관련 3편의 연구논문 중 Hahn(2012a)의 논문은 노라노의 자서전 「노라노, 열정을 디자인하다(2007)」와 『La vie en Rose 展(2012)』을 기초 자료로 연구자가 한국 패션의 미국화 현상을 기능성, 대중성, 융합성으로 규정하여 노라노의 1950년부터 1980년대의 디자인 행보가 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반면 Park(2014a)의 논문은 사적고찰로 1940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패션과 노라노 패션의 성장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 패션사

Table 1. 노라노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연구자	연구 주제	분석 관점	연구 기초자료
Park (2012)	2012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24: 노라노	노라노 구술채록: 생애사 연구 - 채록연구의 특성상 관점 삽입 할 수 없음	- 채록면담(녹취): 총5회, 17시간 20분 - 예비면담: 3회 - 추가면담: 3회 - 녹취자료 채록 연구
Hahn (2012a)	한국 현대패션에 나타난 미국화에 관한 연구 - 1950년대-1980년대 노라노 패션을 중심으로 -	미국화의 특징으로 규정한 '기능성', '대중성', '융합성' 관점에서 노라노 패션의 특징 연구	- 『노라노 자서전』 (2007) - 『La vie en Rose 展』 (2012) - 미국화관련 연구논문 - 한국 패션 관련 단행본
Park (2014a)	20세기 중·후반 한국패션 고찰 - 제1세대 한국패션디자이너 노라노(노명자)를 중심으로 -	1940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 패션과 노라노 패션의 성장과정 분석을 통해 한국 패션사의 주요 사건을 추출	- 구술채록자료 - 한국 패션 관련 단행본 및 연구논문 - 신문기사 - 심층면담: 총3회
Park (2014b)	디자이너 노라노 고찰 -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패션쇼와 디자인 특성 고찰	- 구술채록자료 - 연구대상자 소장 패션쇼 리플렛, 실 물 디자인, 사진자료 - 패션쇼 관련 신문기사 - 심층면담: 총4회

의 주요 사건을 추출하고 있으며, Park(2014b)의 또 다른 논문은 노라노 소장 리플렛과 실물 디자인 작품을 분석하여 노라노의 패션쇼와 년대별 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제1세대 디자이너의 기초연구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국 패션사의 주요 사건들을 보다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 III. 매체 자료 분석을 통해 본 노라노 영화 의상 현황

본 절에서는 한국 패션의 적극적 탈전통화가 진행된 시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66년 중반까지의 노라노 영화 의상을 분석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영화 의상을 담당한 계기와 해당 영화의 현황을 고찰한다.

#### 1. 영화 의상 입문 배경

노라노가 무대 의상에 입문한 계기는 1950년대 초반 국립극장 전속 극단인 신협(新協)의 의상을 제작한 것과 여성국극의 일인자 임춘앵(林春鶯, 1923-1975)의 무대의상을 담당하면서이다(Park 2012). 신협의 연출자이자 최초의 리얼리즘 희곡작가 유치진(柳致眞 1905-1974)과의 교류로 노라노는 무대 의상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였고(Park, 2014b), 국극의 흥행으로 예산이 풍부했던 임춘앵의 의상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소재를 탐구할 수 있었다(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May 26, 2014). 노라노는 신협이 연출한 『Romeo and Juliet』, 『Hamlet』, 『Macbeth』, 『Othello』 등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의 무대 의상을 담당하였다. <Figure 1>은 노라노가 1953년 어머니의 벨벳 스커트를 잘라 만든 김동원이 연기한 헨리 왕자의 의상이다(Park, 2014b). 셰익스피어 작품의 의상 제작은 노라노에게 서양 고전의상의 형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신협의 창작극 중 『은장도(1955)』의 의상 제작은 영화 의상 참여에 직접

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노라노는 밝히고 있다(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July 29, 2014). 시대극인 『은장도(1955)』에서 당시 연출을 맡았던 유치진은 베드신이 있는 최은희의 의상신을 고려하여 스커트의 슬릿을 여유 있게 더 줄 것을 요구했으며(Park, 2012) 이는 노라노에게 역할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전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July 29, 2014).

20세기 중반의 영화 의상은 맞춤형으로 1950년대 중반에는 의상의 비용을 영화사가 아닌 배우 개인이 노라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1950년대 후반부터는 해당 여배우들이 영화사와의 계약 당시 추가 조건으로 노라노에게 자신의 의상을 맡길 것과 해당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명기하였다(Park, 2012). 실례로 1962년에는 Choi(1962)가 연출한 『양귀비(1962)』와 Kim and Kim(1962)의 『천하일색 양귀비(1962)』가 동시에 개봉되었는데, 영화제작 당시 『양귀비(1962)』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김지미가 『천하일색 양귀비(1962)』의 여주인공 도금봉과 의상 계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라노와 계약하였다(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July 29, 2014). 노라노는 영화 의상을 담당하면 시나리오를 통해 여배우들의 캐릭터를 분석하고 각각의 장면별로 의상 착장의 계획을 세워 전체 제작할 의상의 착장수를 산정했다고 한다. 또한 당시에 제작된 여주인공의 의상들은 영화개봉일 극장 로비에 전시되어 관객들이 의상을 직접 볼 수 있었다(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July 29, 2014).

노라노는 1955년 최은희 주연의 『꿈(1955)』을 시작으로 하와이 시장 진출기인 1966년까지 활발하게 여배우들의 의상을 담당하였으며 영화 속에 비추어진 스타일의 스타일은 대중의 트렌드에 영향을 주었다. 노라노는 영화 속 의상 모두를 담당한 것은 아니며 최은희, 엄앵란, 최지희, 조미령,

김지미, 문정숙 등 기존에 고객이었던 배우들의 개인적인 의뢰로 의상을 맡았다. 곧 영화사에는 영화 전반의 의상을 담당하는 미술 감독이 있었다. 한국영상자료원 자료에는 당시 영화들의 미술 감독으로 임명선, 박석인, 이태선이 활동한 것이 기재되어있으며 이들은 영화 전반의 무대디자인, 컬러, 그리고 의상을 담당하였다(Table 2).

## 2. 분석대상 영화 자료 현황

노라노가 2012년 구술채록에서 언급한 영화는 총 15편이며 한국영상자료원에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꿈(1955)』, 『왕자호동과 낙랑공주(1956)』, 『교차로(1956)』, 『청실홍실(1957)』, 『아름다운 악녀(1958)』, 『춘희(1959)』, 『자매의 화원(1959)』, 『꿈이여 다시 한 번(1959)』, 『동심초(1959)』, 『여사장(1959)』, 『박서방(1960)』, 『마부(1961)』, 『양귀비(1962)』, 『배신(1964)』, 『만추(1966)』이며, 이중 『꿈(1955)』, 『자매의 화원(1959)』, 『동심초(1959)』, 『여사장(1959)』, 『마부(1961)』는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세부내용은 <Table 2>와 같다.

## IV.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노라노 영화 의상의 모티브와 스타일 분석

본 절에서는 노라노의 디자인이 한국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친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노라노 담당 영화 의상들을 고찰하며, 분석결과 추출된 여주인공들의 스타일 원천은 <Table 3>과 같다.

### 1. 전통 복식과 중국 복식의 융합 그리고 서양 패션의 차용

노라노는 영화 의상 입문 초기 사극 영화 의상

Table 2. 노라노 관련 영화들의 기본 정보 분석.

제작년도	제목	장르	감독 및 제작사	배우	미술	필름유무	포스터	정보유무
1955	『꿈』	시대극, 사극	신상옥 / 서라벌영화공사	최은희, 황남	-	○	○	○
1956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사극	김소동 / 동광영화사	김동원, 조미령	-	×	○	○
1956	『교차로』	멜로	유현목 / 금성영화사	조미령	임명선	×	○	○
1957	『청실 홍실』	멜로	정일택 / 서라벌영화공사	이민, 엄앵란	-	×	○	○
1958	『아름다운 악녀』	멜로	이강천 / 동방영화사	최지희	임명선	× 다큐 : ○	○	○ 시나리오
1959	『춘희』	멜로 드라마, 신파	신상옥 / 신필름	최은희, 엄앵란	임명선	×	○	○
1959	『자매의 화원』	멜로 드라마	신상옥 / 서울영화사	최은희, 최지희	-	○	○	○
1959	『꿈이여 다시 한 번』	멜로 드라마	백호빈 / 계림영화사	문혜란, 이민, 최은희, 엄앵란	임명선	×	○	○ 시나리오
1959	『동심초』	멜로 드라마	신상옥 / 한국영화배사	최은희, 엄앵란	임명선	○	○	○
1959	『여사장』	코미디	한형모 / 효성영화사	조미령, 이수련	-	○	○	○
1960	『박서방』	멜로 드라마	강대진 / 화성영화사	조미령, 엄앵란	-	○	○	○
1961	『마부』	리얼리즘	강대진 / 합동영화사	황정순, 조미령, 엄앵란, 최지희	-	○	○	○
1962	『양귀비』	사극, 시대극	최훈 / 동방영화사	김지미	박석인	×	○	○
1964	『배신』	멜로, 범죄	정진우 / 한국영화주식회사	엄앵란, 신성일	이태선	×	○	○
1966	『만추』	멜로	이만희 / 대양영화사	문정숙, 신성일	-	×	○	○

을 담당하였다. 1955년 최은희 주연의 연극 『은장도(1955)』의상에서 노라노는 처음 한복과 중국 의상의 융합을 시도하였고(Park, 2012), 이러한 형식은 같은 해 개봉된 영화 『꿈(1955)』의 최은희 의상에 영향을 주었다. 노라노는 『은장도(1955)』의상 제작 당시 중국 벽화 포스터 50장을 구입해 당나

라 복식을 분석하였고, 『꿈(1955)』의 의상도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July 29, 2014). 『꿈(1955)』의 의상은 『삼국유사』 제3권에 수록되어있는 조선 설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화이므로 통일신라 이후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화려

Table 3. 노라노 영화 의상 스타일 분석.

제작 년도	영화 제목	의상 담당 배우	배역 및 역할 특징	의상 스타일 분석
1955	『꿈』	최은희	- 최은희: 신분이 높은 태수의 딸로 젊은 승려 조신과 백년가약을 맺은 진취적인 여성	- 신라 복식과 중국 당나라 전기 복식의 융합 - 마담 그레의 저지 드레이프 드레스 스타일
1956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김동원/ 조미령	- 김동원_호동왕자 역: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있는 잠재력 있는 남성 - 조미령_낙랑공주 역: 현명한 여성	- 삼국시대 복식과 중국 당나라 복식의 융합 - 마담 그레의 드레이프 드레스 스타일 양단, 공단 등 전통 한복 소재 사용
1956	『교차로』	조미령	- 조미령_현숙 역과 옥희 역(1인 2역): 최초의 1인 2역 도전 역할로 부유한 환경의 여대생 현숙과 허영 많은 가사도우미 옥희 역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 자매 역할	- 현숙: 1950년대 미국 칼리지 룩 스타일
1957	『청실홍실』	엄앵란	- 엄앵란_동숙 역: 청순하고 발랄한 매력을 동시에 지닌 철없는 사강 딸	- 엄앵란_오드리 햅번 스타일: 신 여성과 전통 여성의 대비
1958	『아름다운 악녀』	최지희	- 최지희_모델 은미 역: 소매치기이자 창녀라는 자신의 현실과 순수한 사랑이라는 이상의 괴리 사이에서 고통 받는 비운의 여주인공	- 팝트과탈 스타일, 가슴이 드러나는 관능적인 슬리브리스 드레스
1959	『춘희』	최은희/ 엄앵란	- 최은희_춘희 역: 사교계의 여왕이나 순정과 남자 박인식을 만나 사랑에 목숨을 거는 여인 - 엄앵란_정란 역: 박인식의 약혼녀이자 현대산업 사장 딸인 유복한 집 자녀	- 최은희: 크리스탈 발렌시아가, 니나 리치의 구축적 슈트 - 엄앵란: 오드리 햅번, 위베르 드 지방시 스타일
1959	『자매의 화원』	최은희/ 최지희	- 최은희_남 박사의 큰딸 정희 역: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여성 - 최지희_남 박사의 작은 딸 명희 역: 언니의 약혼자를 빼앗는 도발적이고 당돌한 여성	- 칼리지 룩,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H라인, 오드리 햅번 스타일 - 최은희: 『Funny Face』 - 최지희: 『Sabrina』
1959	『꿈이여 다시 한 번』	엄앵란	- 엄앵란_박미정 역: 이숙(최은희)의 딸로 남자주인공 유정남을 짝사랑하는 여대생으로 사랑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신여성	- 엄앵란: 오드리 햅번, 위베르 드 지방시 스타일
1959	『동심초』	엄앵란	- 엄앵란_숙희(최은희)의 딸 경희 역: 어머니의 재혼을 이해하는 딸	- 엄앵란: 오드리 햅번, 위베르 드 지방시 스타일
1959	『여사장』	조미령	- 조미령_여사장 요안나 역: 외향적이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독신여성이나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순종적인 여성으로 변하는 이중적 캐릭터	- 조미령: 크리스탈 발렌시아가, 니나 리치 스타일과 한복의 대비
1960	『박서방』	조미령 (둘째이자 맏딸) 엄앵란 (셋째이자 둘째딸)	- 조미령_용순 역: 집안의 맏딸로 순종적이나 아버지가 반대하는 연애를 하는 강단을 지닌 여성 - 엄앵란_명순 역: 둘째딸로 노스웨스트 항공사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밝고 적극적인 여성	- 조미령: 한복 - 엄앵란: 오드리 햅번, 니나 리치 스타일
1961	『마부』	조미령 (첫째) 엄앵란 (셋째) 최지희 (옥희 친구)	- 조미령_옥례 역: 마부의 병어리 딸로 순종적인 여성이나 남편의 폭력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운의 연인 - 엄앵란_옥희 역: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마음을 쓰기도 하지만 결혼으로 신분상승을 꿈꾸는 철없는 여성 - 최지희_미자 역: 화려한 이미지의 소유자로 남성들을 옥희에게 소개시켜 주는 친구	- 조미령, 엄앵란: 크리스티앙 디오르 - 최지희: 크리스탈 발렌시아가

제작 년도	영화 제목	의상 담당 배우	배역 및 역할 특징	의상 스타일 분석
1962	『양귀비』	김지미	- 김지미_양귀비 역: 천하일색으로 남성을 미혹하는 매력을 지닌 요부	- 중국 당나라 후기 복식, 팜프파탈
1964	『배신』	엄앵란	- 엄앵란: 조직 보스의 애첩이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새로운 사랑에 당당한 여성	- 오드리 햅번, 니나 리치 스타일
1966	『만추』	문정숙	- 문정숙_혜림 역: 특별휴가를 받은 모범수로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온 남자 주인공 훈(신성일)과의 만남에서 진실된 사랑을 깨닫는 여성	- 크리스토폴 발렌시아가 - 트렌치코트, 『Breakfast at Tiffany's (1961)』, 『Charade(1963)』



Figure 1. 김동원을 위한 연극 『Hamlet(1953)』의 헨리왕자 의상.  
From Contributed by Nora Noh.  
(September 5, 2012).



Figure 2. 『꿈(1955)』의 최은희 의상.  
From Contributed by Nora Noh.  
(September 12, 2012).



Figure 3. 『꿈(1955)』 포스터, 최은희 의상.  
From 꿈 (1955) [Dream (1955)]. (n.d.).  
<http://www.kmdb.or.kr>



Figure 4. 마담 그레 디자인 홍보사진, 1953.  
From Benaim. (2003).  
p. 52.



Figure 5. 『왕자호동과 낙랑공주(1956)』의 조미령 의상.  
From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1956) [Prince Ho-Dong and Princess Nak-Rang (1956)]. (n.d.).  
<http://www.kmdb.or.kr>

한 복식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라노는 <Figure 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태수의 딸이라는 높은 신분의 최은희의 의상을 위해 신라 복식과 중국의 당 후기 복식을 융합하였다. 당시의 영화 제작환경은 시대극을 위해 전통 복식을 고증하는 절차가 미흡하였으므로 노라노는 극적인 효과를 고려해 화려한 당나라 복식의 색채와 형식을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이는 신라 복식 역시 당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의상에는 서양의복 형식의 차용도 보이는데 <Figure 3>의 포스터 의상은 기슴부분이 깊게 파인 오블롱네크라인(oblong neckline) 드레이프 드레스로 마담그레(Madame Grés, 1903-1993)의 영향을 받았다(Figure 4). <Figure 5>의 『왕자호동과 낙랑공주(1956)』 영화 캡처에서 보이는 낙랑공주 역할의 조미령 의상 역시 삼국시대 복식과 중국의 전기 당나라 복식을 융합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드레

이프 실루엣을 살려내었다. 반면 <Figure 6>의 『양귀비(1962)』 포스터에서 보이는 김지미 의상은 역사극의 특성상 중국 당의 복식만을 차용하였다(Figure 7).

## 2. 팜프파탈 스타일의 구축

노라노는 주관이 강한 여성상을 표현하기 위해 의상에 팜프파탈 이미지를 담아냈다. 이는 시나리오의 분석을 통해 철저히 준비된 것으로 각각의 장면의 연결을 고려해 의상을 계획한 것으로 영화 전반의 흐름과 배우의 역할을 디자인에 직접 적용한 것이다. 영화필름은 소실되었으나 시나리오가 남아있는 『아름다운 악녀(1958)』의 은미 역 최지희의 의상과 『양귀비(1962)』의 희대의 요부 양귀비 역할의 김지미 의상이 팜프파탈 스타일 구축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Figure 8>에 보이는 『아름다



Figure 6. 『양귀비(1962)』 포스터, 김지미 의상.  
From 양귀비 (1962).  
[Yang Kuei-Fei (1962)].  
(n.d.).  
<http://www.komdb.or.kr>



Figure 7. 『현종황제와 양귀비』, 판화, 1800년경.  
From L'empereur Xuanzong et Yang Guifei [Emperor, Hyeinjing & Yang Kuei-Fei]. (n.d.).  
<http://www.photo.rmn.fr>



Figure 8. 『아름다운 악녀(1958)』 포스터 I, 최지희 의상.  
From 아름다운 악녀 (1958) [A Beautiful Wicked Woman (1958)]. (n.d.).  
<http://www.kmdb.or.kr>



Figure 9. 『아름다운 악녀(1958)』 포스터 II, 최지희 의상.  
From 아름다운 악녀 (1958) [A Beautiful Wicked Woman (1958)]. (n.d.).  
<http://www.kmdb.or.kr>



Figure 10. 『자매의 화원(1959)』의 최지희 의상.  
From Movie captured by the author. (July 21, 2015).

운 악녀(1958)』의 첫 번째 포스터에서 최지희는 가슴선이 드러나는 V넥라인 원피스 그리고 탱크 탑 슬리브리스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Figure 9>의 두 번째 포스터에서는 가슴골이 드러나는 드레이프 드레스를 착용하고 있다. 이 의상들은 관능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슴 부분의 노출을 시도한 디자인이다. 극중에서 소매치기이자 창녀라는 자신의 현실과 순수한 사랑이라는 이상의 괴리 사이에서 고통 받는 비운의 여주인공은 미 역할을 맡은 최지희는 2004년 제작된 다큐멘터리에서 당시 의상에 대해 “속에는 블라우스를 의상실에서 맞춰 왔어요. 넥라인은 깊이 파여서 젖가슴이 보일 듯 말듯, 그렇게 일부러 육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이라고 노라노의 디자인을 설명하고 있다(Kang, 2004). 노라노는 최지희에게 도시적이고 관능적인 세련미를 입혀 최지희를 한국의 브리짓트 바르도(Brigitte Bardot)로 만드는데 일조했다(Lee, 2011; Park, 2012). 또한 『양귀비(1962)』의 김지미 의상은 강한 여성상을 표현하기 위해 원색의 실크 원단을 사용하였다(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July 29, 2014).

### 3. 오드리 햅번 이미지의 재현과 역할의 대비

노라노의 의상 디자인은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 1929-1993) 스타일의 차용이 두드러진다. 노라노는 『자매의 화원(1959)』에서 남 박사의 큰 딸 정희 역으로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캐릭터를 맡은 최은희를 위해 극중의 암전하고 신중한 성격을 반영하여 영화 『Funny Face(1957)』의 짧은 재킷에 타이트 스커트로 착장한 햅번의 수트를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반면 남 박사의 작은딸 명희 역으로 언니의 약혼자를 빼앗는 도발적이고 당돌한 직업 여성 동생 최지희의 적극적인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슬리브리스 스트라이프 블라우스에 사브리나 팬츠를 착용시켜 발랄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Figure 10). 영화 속 의상디자이너인 최지희의 의상실은 실제 노라노의 명동의상실이었으며, 최지희의 의상은 영화 『Sabrina(1954)』에서 오드리 햅번이 착용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사브리나 팬츠에서 영향을 받았다. <Figure 11>의 포스터 속에 보이는 사브리나 팬츠는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가 오드리 햅번을 위해 디자인한 영화 의상이다(Lee & Park, 2011). 또한 <Figure 15>와 같이 『만추(1966)』의 포스터에서 보이는 문정숙의 의상은 트렌치코트로 특별 휴가를 받은 모범수 헤림 역의 문정숙이 자신의 상황과 찰나의 사랑이라는 감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이성과 감성의 갈등을 의상에 담아냈다. 이 의상은 『Breakfast at Tiffany's(1961)』와 『Charade(1963)』의 햅번의 트렌



Figure 11. 『Sabrina (1954)』 포스터, 오드리 햅번 의상. From Sabrina (1954). (n.d.). <http://www.imdb.com>



Figure 12. 『자매의 화원(1959)』 포스터, 최지희 및 최은희 의상. From 자매의 화원 (1959) [A Sister's Garden (1959)]. (n.d.). <http://www.krddb.or.kr>



Figure 13. 『청실홍실(1957)』 포스터, 엄앵란 의상. From 청실홍실 (1957) [The Red and Blue Thread (1957)]. (n.d.). <http://www.krddb.or.kr>



Figure 14. 『춘희(1959)』 포스터, 최은희 의상. From 춘희 (1959) [Chunhee (1959)]. (n.d.). <http://www.krddb.or.kr>



Figure 15. 『만추(1966)』 포스터, 문정숙 의상. From 만추 (1966) [Full Autumn (1966)]. (n.d.). <http://www.krddb.or.kr>



Figure 16. 『Breakfast at Tiffany's(1961)』의 오드리 햅번 의상. From Movie captured by the author. (May 2, 2016)

치코트의 스타일과 유사하다(Figure 16). 또한 <Figure 15>의 포스터 하단에 보이듯이 스카프로 문정숙의 의상 스타일을 마무리 한 것도 햅번의 영향이다.

노라노는 역할의 대비를 의상 속에 담아낸다. <Figure 12>와 같이 『자매의 화원(1959)』 포스터에는 도트 무늬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입은 부드러운 여성인 최은희와 슬리브리스 스트라이프 블라우스로 마무리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최지희의 서로 다른 역할의 대비가 의상 속에 담겨있다. 『청실홍실(1957)』에서도 주인공 스타일의 대비는 계속된다. <Figure 13>의 포스터 속 한복을 착용한 전통 여성인 여주인공 애자 역의 주중녀와 다르게 노라노가 의상을 디자인한 철없는 사장 딸이자 신여성인 동숙 역의 엄앵란의 스타일은 발랄한 오드리 햅번의 이미지를 차용하며 극중 두 여배우들의 대결구도에 긴장감을 높인다. 노라노는 『춘희(1959)』에서도 엄앵란이 맡은 박인식의 약혼녀이자 현대 산업사장 딸로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정란 역을 사랑스러운 햅번의 이미지로 포장한다. 하지만 사교계의 여왕이나 순정과 남자 박인식을 만나 사랑에 목숨을 거는 여인을 연기한 춘희 역의 최은희를 위해서는 절제된 세련미가 흐르는 버틀드로우

슈트를 선보여 캐릭터에 맞는 의상을 제작하였다. <Figure 14>와 같이 『춘희(1959)』 포스터 중앙의 엄앵란은 밝은색의 보우타이 볼레로 재킷을 착용하여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한 반면 왼쪽 앞의 춘희 역 최은희의 의상은 강단 있는 사교계의 대모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한 노라노는 『박서방(1960)』에서 전문직여성 명순 역의 엄앵란의 스타일을 차분한 성격의 언니 용순 역 조미령의 스타일과 차별화시켰다.

『Roman Holiday(1953)』, 『Sabrina(1954)』, 『Funny Face(1957)』, 『Breakfast at Tiffany's(1961)』, 『Charade(1963)』속의 오드리 햅번의 이미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은희, 최지희, 문정숙 그리고 엄앵란에게 입혀졌다. 특히 노라노는 엄앵란을 한국의 오드리 햅번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햅번의 이미지를 차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July 29, 2014). 엄앵란은 『꿈이여 다시 한 번(1959)』에서 짝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여대생이자 사랑을 위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신여성 미정 역<Figure 17>, 『동심초(1959)』에서 어머니 최은희(숙희)의 재혼을 이해하는 현명한 딸 경희 역<Figure 18>, 『박서방(1960)』에서 노스웨스트 항공사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



Figure 17. 『꿈이여 다시 한 번(1959)』 포스터, 엄앵란 의상.  
From 꿈이여 다시 한 번 (1959) [Dreaming Again (1959)]. (n.d.). <http://www.kmdb.or.kr>



Figure 18. 『동심초(1959)』의 엄앵란 의상.  
From Movie captured by the author. (May 5, 2015).



Figure 19. 『배신(1963)』 포스터, 엄앵란 의상.  
From 배신 (1964) [Betrayal (Baesin) (1964)]. (n.d.). <http://www.kmdb.or.kr>



Figure 20. 『Roman Holiday(1953)』의 오드리 헵번 헤어스타일.  
From With Gregory Peck in Roman Holiday (1953). (n.d.). <http://en.wikipedia.org>



Figure 21. 『마부(1961)』의 최지희와 엄앵란 의상.  
From Movie captured by the author. (July 24, 2015).



Figure 22. 『박서방(1960)』의 조미령 의상.  
From Movie captured by the author. (July 21, 2015).

는 밝고 적극적인 여성인 둘째딸 명순 역, 『배신 (1964)』에서 조직 보스의 애첩이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새로운 사랑에 맞서는 당당한 여성상<Figure 19> 등의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는데, 노라노는 엄앵란의 역할에 호기심 많은 앤 공주, 운전기사의 딸 사브리나, 철없는 모델 조, 미스터리한 귀부인 홀리, 미망인 레지나 등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주인공의 스타일을 입혀 여배우의 캐릭터 구축에 일조하였다. <Figure 18>의 동심초의 엄앵란 의상은 앤 공주의 이미지가 담겨있으며, <Figure 20>의 앞머리를 짧게 자른 헵번 커트 역시 당시 엄앵란의 시그니처 헤어스타일이었다.

#### 4. 프랑스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의 스타일과 미국 칼리지 룩의 영향

노라노의 영화 의상은 1950년대 프랑스 패션과 미국에서 유행한 칼리지 룩의 영향을 받았다. 노라노는 1956년 파리연수를 떠나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 1905-1957),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Christobal Balenciaga, 1895-1972), 니나 리치(Nina Ricci, 1883-1970)의 컬렉션을 관람하며 프랑스 패션 트렌드를 경험했고 이것은 노라노의 컬렉션과 영화 의상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노라노는 『ELLE』와 『VOGUE』 잡지를 항공편으로 구독하

며 파리의 트렌드를 빠르게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July 29, 2014).

노라노 영화 의상의 실루엣은 라인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1950년대 디오르의 라인시대 디자인과 발렌시아가의 구조적 의상의 영향이다(Figure 23), (Figure 24), (Figure 25). <Figure 21>은 『마부(1961)』의 한 장면으로 남성들을 만나기 위해 의상을 점검하는 철없는 허영덩어리 마부의 막내딸 옥희 역의 엄앵란(오른쪽)과 옥희에게 남성들을 소개해주는 잘나가는 신여성 미자 역(왼쪽)의 최지희의 모습이다. 두 여배우의 의상은 모두 1953년 S/S 컬렉션에서 디오르가 발표한 튜올립 라인 스타일이다. 의상들의 실루엣은 유사하나 최지희의 의상은 가슴을 드러내 관능미를 극대화시킨 반면 엄앵란의 의상은 노출을 자제하고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었다. <Figure 22>와 같이 『박서방(1960)』의 용순 역 조미령의 의상은 몸에 피트하지 않는 주름 여유분을 디자인에 적용하여 만팔로서 순종적인 캐릭터를 지닌 주인공의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조미령의 의상은 1954년 디오르의 원피스 드레스의 상의와 디자인이 유사하며 스커트의 스타일은 칼리지 룩의 영향을 받았다(Figure 23), (Figure 32).

노라노는 외향적이고 진취적인 독신여성이나



Figure 23.  
『The ritual of final rehearsal』 1954  
F/W, Christian Dior.  
From Pochna. (2005).  
p. 26.



Figure 24.  
『Gascogne』 1950  
F/W, Christian Dior.  
From Pochna. (2005).  
p. 32.



Figure 25.  
『Y-line Suit』 1955  
F/W, Christian Dior.  
From Pochna. (2005).  
p. 41.



Figure 26.  
『여사장(1959)』의  
조미령 의상.  
From Movie capture  
by the author.  
(May 11, 2015).



Figure 27.  
『Suit』 1950 Winter,  
Christobal  
Balenciaga.  
From Jouve. (2004).  
p. 22.



Figure 28.  
『춘희(1959)』의  
최은희 의상  
재현품, 『La Vie en  
Rose』展.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25, 2012).



Figure 29.  
『Ensemble』  
Nina Ricci, 1954.  
From Nina Ricci  
(1883-1970). (n.d.).  
<http://theredlist.com>



Figure 30.  
『배신(1963)』의  
엄앵란 의상.  
재현품, 『La Vie en  
Rose』展.  
From Photographed  
by the author.  
(May 25, 2012).



Figure 31.  
『Silk Moire Gown』  
Nina Ricci,  
1950년대.  
From 1950s Couture  
Nina Ricci Silk Moire  
Gown & Evening  
Coat. (n.d.).  
<http://www.shrimptocouture.com>



Figure 32. 칼리지  
룩 원피스  
드레스를 입은  
1950년대 미국  
여대생들의 모습.  
From Baudot. (1999).  
p. 141.



Figure 33.  
『교차로(1956)』의  
조미령 의상.  
From  
交叉路金星映畫社 作  
[The Crossroad by  
Gumsung Film  
Studio]. (1955).  
<http://newslibrary.naver.com>



Figure 34.  
『교차로(1956)』  
포스터,  
조미령 의상.  
From 교차로 (1956)  
[The Crossroad  
(1956)]. (n.d.).  
<http://www.kmdb.or.kr>

사랑하는 남성을 만나 순종적인 여성으로 변하는 이중적 캐릭터인 여사장 요한나 역의 조미령을 위해 <Figure 26>와 같이 『여사장(1959)』의 한 장면에서 보이듯이 비즈니스 우먼을 위한 구축적 의상을 디자인한다. 이는 1950년 발렌시아가의 구조적 슈트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Figure 27). 노라노는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가 발렌시아가임을 밝히고 있다(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2014년 7월 29일). 또한 <Figure 15>에 보이는 『만추(1966)』의 포스터 문정숙의 의상 역시 트렌치코트에 발렌시아가의 1950년대 벨코트 스타일을 융합시킨 것이다.

노라노의 영화 의상에는 니나 리치의 스타일도

보이는데 이는 1955년 노라노가 파리에서 디오르, 발렌시아가의 컬렉션과 함께 니나 리치의 컬렉션을 관람하고 샘플 의상을 구입한 것의 영향이다 (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2014년 5월 26일). <Figure 14>와 같이 『춘희(1959)』 포스터에 보이는 춘희의 의상은 니나 리치와 발렌시아가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되었으며 최은희가 착용한 모자는 노라노가 파리에서 개최된 니나 리치 컬렉션에서 그리고 스웨이드 장갑은 로드 샵에서 직접 구매한 것을 스타일링 한 것이다(Park, 2012; Oral statement interview by the author, May 26, 2014). 춘희의 의상은 니나 리치의 영향을 받아 블랙, 화이트 등 간결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디자인 되었다

(Figure 14), (Figure 28), (Figure 29). <Figure 28>과 같이 춘희의 의상은 2012년 노라노가 『La vie en Rose 展(2012)』을 위해 다시 제작한 재현품이다.

지방시의 디자인 역시 노라노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것은 컬렉션의 영향이 아닌 오드리 햅번 스타일의 탐구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오드리 햅번이 지방시에 디자인을 의뢰해 영화 의상을 제작했기 때문이다(Lee & Park, 2011). 엄앵란의 햅번 룩에도 니나 리치의 스타일이 보인다. 보관되어 있는 패턴으로 제작한 재현품인 <Figure 30>의 엄앵란 의상은 1950년대 니나 리치의 디자인의 영향을 받았다(Figure 31).

노라노 디자인의 특징은 원피스 드레스가 많은데 이는 제한된 시간에 의상을 제작해야 하는 시간적 측면과 비용이 모두 고려된 것이다. <Figure 32>의 1950년대 미국 칼리지 룩은 <Figure 33>에서 보이듯이 『교차로(1956)』에서 1인 2역의 쌍둥이 자매 역을 모두 소화한 조미령의 역할 중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현숙 역의 조미령 의상과 <Figure 12>와 같이 『자매의 화원(1959)』 포스터 오른편의 정희 역 최은희의 의상에 반영되었다. 최은희의 의상은 도트 패턴 슬리브리스 원피스 드레스로 영화 초반부에 보인다. 노라노는 여배우의 신체미를 살려 가슴 부분에 풍성한 주름을 주고 허리를 피트하게 밴드처리 한 폭넓은 A라인 플레어 드레스를 디자인했는데 이 역시 칼리지 룩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Figure 34>의 『교차로(1956)』 포스터에서 보이는 조미령의 세일러드 셔츠 폴프웨어도 1950년대 파리 하이패션 스포츠웨어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디자이너 노라노 소장 자료와 연구자 수집 노라노

관련 매체자료를 분석하여 노라노 패션과 한국 여성 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고찰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의 지면 제한으로 연구(1)과 연구(2)로 나누어 연구를 개진하였으며, 본고는 연구(1)로 한국 패션의 탈전통화 배경과 1956년부터 1966년까지의 노라노 영화 의상을 분석하여 탈전통화기의 트렌드와 영향을 고찰하였다.

한국전쟁 이전인 20세기 초반 한국 패션의 소극적 탈전통화 현상은 서양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전도부인, 여학생, 유학생, 신여성 등 시대의 패션 선구자들에 의해 구축된 것이며, 전쟁 이후의 적극적 탈전통화는 1937년부터 양장점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1950년대 패션디자이너로 도약한 최경자 그리고 1956년 최초의 디자이너 패션쇼를 개최한 노라노와 더불어 서수현, 송옥, 임복순 등의 제1세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실현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 패션의 트렌드를 주도한 디자이너는 노라노였다. 노라노는 1950년대 맞춤복에 주력하며 고급패션시장을 장악하였고 이는 1960년대 초반 하와이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었다. 노라노는 당시 맞춤복과 기성복 사업을 병행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브랜드의 방향성을 정립하며 전성기를 맞는다. 노라노의 또 다른 전성기는 1980년대 미국 시장 진출기로 평가되는데 이 시기는 디자이너가 국내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지 않은 시점으로 국내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곧 노라노는 한국 패션 트렌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시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브랜드 전성기에 배우들의 요청에 의해 영화 의상을 담당하였고 이를 계기로 노라노의 스타일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의 스타일로 확산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화 의상은 ‘하우스 오브 노라노(House of Nora Noh)’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겠다.

노라노는 『꿈(1955)』의 최은희, 『왕자호동과 낙랑공주(1956)』의 조미령, 『교차로(1956)』의 조미령, 『청실홍실(1957)』의 엄앵란, 『아름다운 악녀(1958)』의 최지희, 『춘희(1959)』의 최은희와 엄앵란, 『자매의 화원(1959)』의 최은희와 최지희, 『꿈이여 다시 한 번(1959)』의 엄앵란, 『동심초(1959)』의 최은희와 엄앵란, 『여사장(1959)』의 조미령, 『박서방(1960)』의 조미령, 『마부(1961)』의 엄앵란과 최지희, 『양귀비(1962)』의 김지미, 『배신(1964)』의 엄앵란, 『만추(1966)』의 문성숙의 영화 의상을 담당하였다. 본고에서 15편의 영화를 분석한 결과 노라노는 1959년 5편의 영화 의상을 디자인하였는데 이 시기는 1956년 최초의 패션쇼를 연후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브랜드가 급성장한 ‘하우스 오브 노라노’의 전성기와도 일치하였다.

앞서 언급된 영화들의 필름, 포스터, 미술 감독, 세부정보 유무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Table 2). Shin(1955)의 1955년 작품 『꿈(1955)』은 드라마 장르의 영화로 필름, 포스터, 세부정보가 남아있으나 미술 감독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사극장르의 『왕자호동과 낙랑공주(1956)』는 Kim(1956)의 1956년 작품으로 포스터와 간단한 정보만이 남아있었다. 같은 해 개봉된 Yoo(1956)의 연출작 『교차로(1956)』는 정통 멜로드라마 영화로 임명선이 미술 감독으로 활동하였고 영화의 필름은 유실되었으나 포스터와 세부정보는 기록되어 있었다. 『청실홍실(1957)』은 1957년 Jung(1957)이 연출한 멜로신파물로 포스터와 개괄적인 정보만 남아있었다. 이 영화의 필름은 유실되었고 미술 감독 정보 역시 찾을 수 없었다. Lee(1958)의 1958년 작품 『아름다운 악녀(1958)』는 필름은 소실되었으나 시나리오와 2004년 제작된 최지희의 다큐멘터리가 있어 내용 분석이 가능하였고 포스터도 남아있었다. 이 영화의 미술 감독은 임명선이 담당하였다. 『춘희(1959)』는 1959년 Shin(1959a)의 멜로드라마이자 신파장

르 영화로 미술 감독은 임명선이 맡았고 포스터와 기본 정보는 남아있으나 필름은 유실되었다. 같은 해 개봉된 또 다른 Shin(1959b)의 작품인 『자매의 화원(1959)』은 멜로드라마 장르 영화로 필름, 포스터, 간단한 정보가 모두 남아있었다. 하지만 미술 감독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역시 같은 해 개봉된 『꿈이여 다시 한 번(1959)』은 Baek(1959)의 멜로드라마 장르로 필름은 남아있지 않으나 시나리오가 보존되어 있어 내용분석이 가능하였다. 미술 감독은 임명선이 담당하였으며 포스터도 남아있었다. 『동심초(1959)』 역시 1959년 작품으로 Shin(1959c)의 작품이다. 멜로드라마 영역인 이 작품의 미술은 임명선이 맡았고 필름, 포스터, 기본자료 등이 모두 확인이 가능하였다. 1959년 작품 『여사장(1959)』은 Han(1959)의 코미디 장르 영화로 미술 감독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필름, 포스터, 기초정보들이 남아있었다. 멜로드라마 장르의 1960년 개봉작 『박서방(1960)』과 리얼리즘 장르의 1961년 작품 『마부(1961)』는 모두 Kang(1960, 1961)이 연출을 맡았다. 영화들의 필름, 포스터, 기초정보들은 찾을 수 있었으나 미술 감독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 중 『마부(1961)』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수상작이다. 『양귀비(1962)』는 1962년 Choi(1962)가 연출한 사극장르로 미술 감독은 박석인 이었다. 필름은 없으나 포스터와 정보가 남아있었다. 1964년 Jung(1964)이 연출한 멜로 및 범죄 드라마장르 영화 『배신(1964)』은 포스터와 간략한 정보만 남아있었고 필름은 유실되었다. 『배신(1964)』은 이태선이 미술을 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추(1966)』는 1966년 Lee(1966)가 연출한 멜로장르로 필름은 없었고 미술 감독 역시 알 수 없었다. 『만추(1966)』는 포스터와 간략자료만이 남아있었다.

한국 패션의 적극적 탈전통화기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한국 현대 패션의 도약기이었으며 이 시기 노라노 영화 의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초기 노라노의 영화 의상은 전통 복식과 중국 복식의 융합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는 사극영화라는 영화의 장르와 연관성이 컸다. 하지만 사극 장르의 경우에서도 마담 그레의 드레이프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오블롱 드레스의 사례와 같이 서양 패션 스타일을 함께 선보였다. 둘째로 노라노는 20세기 중반의 보수적인 한국 사회상에 반하는 도발적이고 적극적인 여성 캐릭터의 정석을 팜프파탈 스타일로 구체화시켰다. 노라노는 시나리오를 분석해 역할의 캐릭터를 시스루 원단, 가슴의 노출, 슬리브리스 등 적절한 디자인 포인트로 구체화시키며 매력적이고 관능적인 팜프파탈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셋째로 노라노의 영화 의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오드리 햅번 스타일이다. 노라노는 햅번의 스타일을 기본으로 상반된 역할을 재현해 나가며 여배우들의 캐릭터를 구축해 나갔다. 『Roman Holiday (1953)』, 『Sabrina(1954)』, 『Funny Face(1957)』, 『Breakfast at Tiffany's(1961)』, 『Charade(1963)』의 오드리 햅번의 이미지는 최은희, 최지희, 문정숙, 엄앵란에게 재현되어 20세기 중반 대중의 스타일을 주도하였다. 넷째로 노라노는 프랑스 오트 쿠튀르들의 스타일과 미국의 칼리지 룩을 영화 의상에 차용하였다. 노라노는 1956년 파리에서 패션 쇼를 직접 관람한 디오르, 발렌시아가, 니나 리치의 스타일과 더불어 컬렉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드리 햅번의 탐구를 통해 스타일을 습득한 지방시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비용과 실용성을 이유로 다수 제작되었던 원피스 드레스 아이템 중 미국의 칼리지 룩도 노라노 영화 의상에서 중요하였다. ‘하우스 오브 노라노’의 스타일이 발렌시아가의 영향을 받는데 비해 영화 의상은 디오르의 라인시대 디자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프랑스와 미국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 하이패션의 트렌드를 전파한 노라노는 최경자와 함께 해외

의 트렌드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내며 20세기 중반 한국 패션의 스타일을 주도하였다. 특히 영화 의상을 통해 노라노는 『아름다운 악녀 (1958)』의 최지희를 팜프파탈의 여신이자 한국의 브리지트 바르도로, 『배신(1964)』의 엄앵란을 다양한 매력을 지닌 한국의 오드리 햅번으로 만들며 국외의 트렌드를 국내에 전파하였다.

해외스타일의 단순한 답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한국 패션의 적극적 탈전통화를 이루어낸 최경자, 노라노와 같은 제1세대 패션디자이너들의 노력은 해외트렌드를 분석하여 우리 원단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스타일과 트렌드를 구축해내었다는 측면에서 한국 근현대 패션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실물작품이 유실된 영화 의상을 고찰한 관계로 영상자료와 인쇄자료에만 의존하여 연구 분석을 진행하여 소재, 컬러 등 구체적으로 의상들의 디자인 요소를 추출해 내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본고는 매체분석을 통해 본 노라노 패션과 한국 패션 고찰의 첫 번째 연구로 한국 여성 패션의 탈전통화 현상의 경로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의 노라노 관련 영화 의상을 분석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인 연구(2)에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인쇄 및 영상 매체자료를 분석하여 해당시기의 패션 트렌드를 고찰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패션사적 사실들을 재검증하여 한국 여성 패션 현대화의 주요 사건들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추출할 것이다.

## References

- Baek, H. M. (1959). *꿈이어 다시 한 번* [Dreaming Again]. Seoul: Gaerim Film Studio.
- Baudot, F. (1999). *A Century of Fashion*. London: Thomas & Hudson.

- Benaïm, L. (2003). *Grès*. New York: Assouline Publishing.
- Choi, H. (1962). *양귀비* [Yang Kuei-Fei]. Seoul: Dongbang Film Studio.
- Han, H. M. (1959). *여사장* [A Female Boss], Seoul: Hyosung Film Studio.
- Hahn, S. Y. (2012a). Americanization expressed in Korean fashion: Focused on 1950s~1980s Nora Noh fashion.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4(3), 195-204.
- Hahn, S. Y. (2012b). Fashion exhibition as fashion communication media: Focus on the 2012 Nora Noh LA Vie en Rose exhib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9), 966-978.
- Jouve, M. A. (2004). *Balenciaga*. New York: Assouline Publishing.
- Jung, I. T. (1957). *청실홍실* [The Red and Blue Thread]. Seoul: Seorabel Movies, Ltd.
- Jung, J. W. (1964). *배신* [Betrayal (Baesin)]. Seoul: Korean Film Co.
- Kang, D. J. (1960). *박서방* [Mr. Park (Bak-seo-bang)]. Seoul: Hwasung Film Studio.
- Kang, D. J. (1961). *마부* [A Coachman]. Seoul: Hapdong Film Studio.
- Kang, S. O. (2004). *아름다운 악녀: 최지희* [Auremdaun Angnyeo: Choe, Jihui]. Seoul: Korean Film Archive.
- Kim, S. D. (1956).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Prince Ho-Dong and Princess Nak-Rang]. Seoul: Dongkwang Film Studio.
- Kim, W. R., & Kim, K. D. (1962). *천하일색 양귀비* [Yang Kuei-Fei, a Destructive Beauty]. Seoul: Geugdong Heung-eob.
- Lee, J. J., & Park, S. M. (2011). *패션 문화를 말한다: 패션으로 20세기 문화읽기* [Fashion & Culture]. Seoul: Yekyong.
- Lee, K. C. (1958). *아름다운 악녀* [A Beautiful Wicked Woman]. Seoul: Dongbang Film Studio.
- Lee, M. H. (1966). *만추* [Full Autumn (Manchu)]. Seoul: Daeyang Film Studio.
- Lee, S. K. (2011).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영화 1001* [Korea film to look before died 1001]. Seoul: Maroniebooks.
- Nina Ricci (1883-1970). (n.d.). *The Red List*. Retrieved August 11, 2016, from <http://theredlist.com/wiki-2-23-1249-1255-view-1940s-profile-nina-ricci-4.html>
- Park, S. M., & Lee, J. J. (2010). An observation of aspects of modernization of women's fashion in the 190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0(3), 115-133.
- Park, S. M. (2012). Nora Noh 1928~2012 *Korean Modern Art History: Research of the Oral Statement Series vol. 224*. Seoul: The Korean National Archives of Arts.
- Park, S. M. (2014a). An observation on mid to late twentieth century Korean fashion: Focus on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Nora No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4), 52-75. doi:10.7233/jksc.2014.64.4.052
- Park, S. M. (2014b). A study on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Nora Noh: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Nora Noh's fashion shows and designs from the 1950s to the 199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2), 89-109.
- Pochma, M. F. (2005). *Dior*. New York: Assouline Publishing.
- Sabrina (1954). (n.d.). *IMDb*. Retrieved November 21, 2016, from <http://www.imdb.com/title/tt0047437/mediaviewer/rm1416617728>
- Shin, S. O. (1955). *꿈* [Dream]. Seoul: Seorabel Movies, Ltd.
- Shin, S. O. (1959a). *춘희* [Chunhee]. Seoul: Shin Film.
- Shin, S. O. (1959b). *자매의 화원* [A Sister's Garden]. Seoul: Seoul Film Studio.
- Shin, S. O. (1959c). *동심초* [Dongsimcho]. Seoul: Korean Youngbae Studio.
- Yoo, H. M. (1956). *교차로* [The Crossroad]. Seoul: Gumsung Film Studio.
- Yoo, S. K. (1990). *韓國女性洋裝變遷史* [The History Development of Korea Women's Modern Fashion]. Seoul: Iljisa.
- With Gregory Peck in Roman Holiday (1953). (n.d.). *WIKIPEDIA*. Retrieved May 2, 2016, from [https://en.wikipedia.org/wiki/Audrey\\_Hepburn#/media/File:Audrey\\_Hepburn\\_and\\_Gregory\\_Peck\\_on\\_Vespa\\_in\\_Roman\\_Holiday\\_trailer.jpg](https://en.wikipedia.org/wiki/Audrey_Hepburn#/media/File:Audrey_Hepburn_and_Gregory_Peck_on_Vespa_in_Roman_Holiday_trailer.jpg)
- 1950s Couture Nina Ricci Silk Moire Gown & Evening Coat. (n.d.). *SHRIMPION COUTURE*. Retrieved July 12, 2016, from <http://www.shrimptoncouture.com/products/1950s-couture-nina-ricci-pale-green-gown-evening-coat>
- 교차로 (1956) [The Crossroad (1956)]. (n.d.). *KMDB*. Retrieved July 12,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286&keyword=교차로#none](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286&keyword=교차로#none)
- 꿈 (1955) [Dream (1955)]. (n.d.). *KMDB*. Retrieved July 12,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272&keyword=%EA%BF%88#none](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272&keyword=%EA%BF%88#none)
- 꿈이여 다시 한 번 (1959) [Dreaming Again (1959)]. (n.d.). *KMDB*. Retrieved July 12,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442&keyword=꿈이여다시한번#none](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442&keyword=꿈이여다시한번#none)
- 만추 (1966) [Full Autumn (Manchu) (1966)]. (n.d.). *KMDB*. Retrieved June 21,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1418&keyword=%EB%A7%8C%EC%B6%94](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1418&keyword=%EB%A7%8C%EC%B6%94)
- 배신 (1964) [Betrayal (Baesin) (1964)]. (n.d.). *KMDB*. Retrieved June 21,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973&keyword=배신#none](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973&keyword=배신#none)
- 아름다운 악녀 (1958) [A Beautiful Wicked Woman (1958)]. (n.d.). *KMDB*. Retrieved May 5,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360&](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360&)

- keyword=아름다운악녀#none
- 양귀비 (1962) [Yang Kuei-Fei (1962)]. (n.d.). *KMDb*. Retrieved July 21,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710&pgGubun=01](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710&pgGubun=01)
- 왕자호동과 낙랑공주 (1956) [Prince Ho-dong and Princess Nak-rang (1956)]. (n.d.). *KMDb*. Retrieved June 21,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298&keyword=왕자호동과낙랑공주#none](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298&keyword=왕자호동과낙랑공주#none)
- 자매의 화원 (1959) [A Sister's Garden (1959)]. (n.d.). *KMDb*. Retrieved May 11,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508&keyword=자매의화원#none](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508&keyword=자매의화원#none)
- 청실홍실 (1957) [The Red and Blue Thread (1957)]. (n.d.). *KMDb*. Retrieved May 5,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339&keyword=청실홍실](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339&keyword=청실홍실)
- 춘희 (1959) [Chunhee (1959)]. (n.d.). *KMDb*. Retrieved May 5, 2015, from [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467&keyword=%EC%B6%98%ED%9D%AC#none](http://www.kmdb.or.kr/vod/vod_basic.asp?nation=K&p_dataid=00467&keyword=%EC%B6%98%ED%9D%AC#none)
- 交叉路金星映畫社 作 [The Crossroad by Gumsung Film Studio]. (1995, August 12). *Dong-A Ilbo*. Retrieved July 12, 2015,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5081200209204010&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55-08-12&officeId=00020&pageNo=4&printNo=9993&publishType=00020>
- L'empereur Xuanzong et Yuang Guifei [Emperor, Hyeinjing & Yang Kuei-Fei]. (n.d.). *L'Agence Photo RMN Grand Palais*. Retrieved December 31, 2015, from <http://www.photo.rmn.fr/C.aspx?VP3=SearchResult&VBID=2CO5PCD4EAD4A&SMLS=1&RW=1366&RH=662>

# **A Study on Nora Noh Fashion and Korean Modern Fash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1)**

**-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Media Related to Nora Noh's Movie Costumes from  
the mid 1950's to mid 1960's -**

**Park, Shin Mi<sup>+</sup>**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odern phenomenon of Korean women's fashion and Nora Noh, who is one of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fashion designers, through media materials from the 1950s to the 1990s. This research is structured into two parts and the current paper is the first section. The first paper is to examine the post-traditional phenomenon of Korean modern fashion and analyse the movie costumes of Nora Noh from 1955 to 1966. The research focuses on the objective materials by examining newspapers, leaflets of fashion shows, program sheets, movie posters and etc. The methodologies of the research include the qualitative and posi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reviewing the previous researches, interviewing Nora Noh and analyzing the content.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through the research (1). Before the Korean War, Korean women's fashion was affected by female students who studied abroad or in local women's Universities established by foreign entities and female missionaries who experienced western culture. The era was the indirect post-traditional period. However, after the war, the fashion trend was mainly led by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fashion designers. The era switched to the direct post-traditional period. Nora Noh, who was inspired by the French and American fashion, and Kyungza Choi who was inspired by the Japanese fashion system were the trend leaders of the Korean modern fashion in the mid twenty century. Focusing on the movie costumes Nora Noh created the images of movie stars such as the muse of the Femme Fatale, Jeehee Choi, Um Aingran who were called Korean Audrey Hepburn, etc. The images of the movie stars were the bridges of the western fashion style into the public and became the key trend of Korean modern fashion in the mid twenty century.

Key words : Korean modern fashion history, Nora Noh, post-traditional, the first generation Korean fashion designer, Korean movie costume in the mid twenty century

